

大學의 發展과 自律化의 定着



釜山大 總長 崔 載 勳

I. 大學의 發展過程

올해는 光復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해이다. 日帝植民地支配下에서 해방된 우리 겨레가 이제 理性의 年代인 壯年의 나이로 접어든 셈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 大學이 걸어온 발자취를 차분히 돌이켜 보고 2000年代를 향한 오늘의 우리 大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摸索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 40年 동안 우리의 大學敎育은 숏한 變革을 경험해 왔으며, 學生數의 폭발적인 증대와 規模의 mammoth化로 量的인 擴大를 가져왔다. 오늘날 大學數의 急増과 女學生을 포함한 大學生數의 急増이라는 현상은 거의 全世界의인 現象이다. 美國뿐만 아니라 獨逸, 英國, 佛蘭西, 日本 등에서도 그러한 現象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메스 프록덕션 敎育에 의한 規模의 mammoth化는 大學의 機能마저도 質的으로 變化시키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現代의 大學은 옛날의 大學과는 다르다. 大學의 模型을 보여 준 中世 유럽의 大學은 조그마한 組織이었다. 敎授와 學生이 自治에 의하여 함께 生活하고 배우는 敎育의 組合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世俗을 벗어나 眞理를 위한 眞理를 探究했다. 政治, 軍事, 經濟 등 外部의 힘이 大學에 간섭하고 壓力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國家가 經濟的으로 援助할 필요도 없었고, 大學의 規模나 卒業生數를 計劃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大學은 自治라기보다는 自覺에 의해 운영되는 組織이었다.

그 후 歷史의 進展에 의하여 大學의 規模는 점차로 擴大되었으나 中世에 만들어진 작은 組織으로서의 大學의 原型은 産業革命期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産業革命은 社會構造에 一大變化를 가져왔고 따라서 大學도 變貌되지 않을 수 없었다. 大學은 이리하여 第二段階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점차 擴大되었다. 그리고 敎育의 內容에 있어서도 이제 眞理를 위한 眞理의 探究가 아니라 知識의 實用性이 重視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先進工業國에

서는 大學에 있어서 知識의 大衆化, 實用化가 進行되고 技術革新期에 들어가자 이 나라들은 유럽의 傳統으로부터 飛躍을 피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유럽 傳統의 가장 강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라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0年代 이후의 美國은 實用性, 大衆性의 追求와 함께 유럽風의 古典教育을 배워서 強烈한 自由人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한편, 直接的인 實用성과 관계 없는 基礎部門의 研究에 힘을 쏟아 創造性의 開發을 重視하고 있다.

그리하여 第2期의 技術革新期을 거쳐 발전한 第3期의 大學은 그 이전의 대학과는 많이 다르다. 오늘날의 大學은 規模가 크고 科學技術分野의 擴充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國家에서 巨額의 投資를 하고 있다. 產業과 技術構造의 變化를 豫想하여 大學의 規模, 專門分野別의 構成, 大學院의 研究 등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大學의 變遷過程과 오늘날 先進各國의 趨勢를 고려할 때, 大學의 量的 擴大를 잘못된 現象이라고 탓할 수단은 없다. 문제는 그 量的 擴大를 얼마만큼 質的 向上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量을 확보하고 質을 강화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II. 大學院教育의 強化

일찍이 英國의 자선사업가이며 교육가인 조지 피바디는 “教育은 現世代가 前世代에 전 빛을 다음 世代에게 갚아 나가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의 先代들이 刻苦의 노력과 獻身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教育의 恩惠를 우리는 더 보태어 後代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60~'70年代의 經濟成長과 社會發展도 가장 어렵던 '50年代에 앞선 世代가 희생적으로 後世를 가르치고 키운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世紀의 한국은 오늘 우리가 길러 낸 다음 世代의 質에 달려 있다.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敎師의 養成과 確保가 급선무이며, 따라서 大學院教育의 強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제는 大學院도 特殊大學院까지 포함하여 그 數나 學生數의 量的 膨脹은 대단하여서 도저히 현재의 學部敎授만으로는 碩·博士學位論文의 指導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므로 專任敎員의 配置나 施設의 整備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大學院教育의 機能 중의 하나가 敎授의 養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大學院 커리큘럼 속에 學術專門分野의 敎授法과 心理學 등 必須의 敎職科目이 開設되어야 하고, 그 뿐만 아니라 大學의 教育·研究·管理 등의 機能, 學生의 人間研究, 大學史 등을 총괄한 이른바 ‘大學學’ 같은 것도 빨리 成立시켜 必須科目으로서 開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大學院은 敎授養成 이외에도 專門的인 高級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그 機能이 확대 強化되어야 한다. 즉 대학원은 產業社會의 高度化를 뒷받침하는 戰略的인 技術을 개발할 研究人力 및 각 分野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專門人力의 양성과 공급에 主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研究開發을 위한 人力의 需要가 점차 증가되어 갈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GNP 중에서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현재 1% 미만이나, 그러나 先進國의 경우와 같이 GNP 중에서 研究開發費가 차지하는 比率을 2% 내지 3%로 증가시킨다

던 研究開發을 위한 人力의 需要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아질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을 중요시하는 現代社會에서 大學院 機能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의 構造의 變動과 함께 大學院教育이 갖는 役割도 새롭게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학원 중심 대학의 육성과 운영을 비롯하여 대학원 체제의 개편 등은 말로서만 되풀이될 것이 아니라 實效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教育 · 研究機能의 調和

大學에는 研究와 教育이라고 하는 二大機能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機能을 잘 調和시켜 大學 發展의 推進力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大學 教授는 스스로를 研究者인 동시에 教育者라고 自負하고 있다. 그러나 意識이나 行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教授의 역할 가운데서 그 어느 쪽에 더 重點을 두느냐 하는 것은 個人에 따라 혹은 소속하는 大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옛날과는 달리 大學教育이 一般化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매스 프로덕션 教育이 불가피해짐으로써 研究重視의 대학 풍토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研究와 教育의 一致라고 하는 豫定調和說은 분명히 지난날의 아카데미한 大學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서는 學問研究가 最高의 機能으로 간주되고, 모여든 학생은 少數의 엘리트였으며, 稀少價値를 가지고 있던 學問이나 學者에 대해서는 尊敬心이 대단했다. 學者로서 훌륭한 분일수록 존경받고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教育力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學問은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었으며 一般教養을 갖춘 市民의 養成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훌륭한 研究者가 곧 훌륭한 教育者라고 하는 公式은 이미 통용되지 않게끔 狀況이 變化되었다. 오늘날의 學生이 教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기 쉬운 講義, 재미나는 講義이고 때로는 學生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에도 참가하며 現實의인 社會問題도 다루기도 하는 그런 것이다. 많은 教授들이 專門的인 研究論文이나 學術的인 著作보다는 적당한 부피의 要領 있게 정리한 教科書나 혹은 저널리시틱한 短論文을 쓰는 能力들로 學生들의 관심을 사는 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한 教授의 姿勢가 참된 教育은 아니고 또한 教授의 責任도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하간 研究와 教育, 研究者와 教育者의 自動的 兩立이라고 하는 牧歌的인 豫定調和說이 이제 오늘날의 大學에서는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教授의 研究機能이 결코 輕視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긴 眼目으로 볼 때 새로운 學問的인 開發과 研究水準의 提高는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推進力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大學이 研究機能을 상실하고 만다면 中·高等學校나 技術養成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오늘날의 大學 教授에게는 學生에 대한 教育的인 役割 이외에도 ‘카운셀링’, ‘가이던스’ 그 밖의 종합적인 學生指導에 관한 많은 教育的 義務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教育的 義務가 많은 精神的 疲勞와 時間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學問研究에 쏟을 수 있는 時間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研究者로서의 大學 教授에게는 義務도 責任도 아닐런지 모

르지만 敎育者로서의 大學 敎授에게는 당연한 義務요 責任인 것이다.

이러한 現實의 與件下에서 우리는 敎育機能과 研究機能을 調和·提高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大學의 自律化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V. 大學의 自律化 問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大學이 刮目할 만큼 發展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特性다운 特性을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굳이 한 가지 두드러진 特性이 있다면 全國의 大學이 個性도 多樣性도 없는 劃一的인 體系를 가지게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韓國的인 大學의 傳統이나 學風을 樹立하는 데 있어서 哲學이나 理念이 定立되지 못했다는 것과 敎育政策의 一貫性이 缺如되고 있었던 데에 基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枝葉的인 事項까지 판에 박은 듯한 劃一的인 行政處理도 大學의 個性과 多樣性을 잃게 한 큰 要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壯年期에 접어든 韓國의 大學이 대학 本來의 使命과 機能을 다 하기 위해서도 大學 자체가 누려야 할 自律의 權威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大學의 自由나 自律性이 定着되려면 一貫性 있는 政策意志와 아울러 大學의 倫理的 自律性과 自主性이 먼저 確立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他律의 構造 속에 安住해 온 大學이 근본적으로 體質을 바꾸어 가려면 참으로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 大學生들의 自由奔放이 정도를 넘어 非倫理的인 것으로 되거나, 혹은 治外法權的인 行爲로 나타날 경우, 그것은 大學의 尊嚴과 自律을 침범하는 結果가 되고 말 것이다. 自律이 결코 放任이 될 수 없으며, 大學의 秩序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自律이 定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大學生이 現實政治에 뛰어들거나 大學이 現實政治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면 大學의 自律性이나 尊嚴性은 유린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自由나 權威는 어디까지나 大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大學은 적어도 現實政治에 초연하거나 中立的이어야 하며 敎育의 場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大學의 自由나 自律化의 定着은 敎權의 確立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길은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